

정례브리핑

2020.5.18(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되는 '제 40주년 5.18 민주화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9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정부서울청사 주차장에서 개최되는 '코로나19 극복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에는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되는 통일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하여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 특강은 일정만 공개된다는 점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개최되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관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에는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되는 통일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선전매체들이 오늘 5.18 학살자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남남갈등과 한미동맹 이간을 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선전매체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당국이 일련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배경 정도는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답변> 관련 매체의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선전매체에 대해서 정부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통일부가 최근 유엔사와 판문점 견학 출입 승인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느 정도 선까지 협의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협의의 쟁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 다음 달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 때부터 한국인 심사기간이 3일로 줄어들 수 있는지, 세 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기간을 내국인 종래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유엔사와 협의해 왔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금요일 이에 대해서 소요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고, 이 점에 대해서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께서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사와 협의 문제는 주된 문제는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내국인은 14일 소요됐다면 외국인들은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유엔사의 입장을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내·외국인 차별 없이, 구별 없이 3일로 통일되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다음 달에 판문점 견학이 될 것이냐는 문제는 판문점 견학의 재개 문제는 유엔사와 협의 중인 사안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판문점 견학 지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역이고, 우리 측 방역당국 입장이 5월 중으로 동 지역에 멧돼지 검체조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입장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지금 유엔사와 협의 중인 내용에 지금 이견이 없이 돼지열병 문제만 해결이 되면 3일로 단축된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유엔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측에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겠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유엔사가 3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내국인의 방문, 견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인원도 좀 증가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진행이 된 것이 있나요?

<답변> 내국인의 인원이 증가되는 문제는 유엔사와 지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판문점지역에서 생기는 방역적 고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다음 달에 있을 6.15 2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요. 민간단체에서 북측에 참석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북측에서 답변이 왔다고 들으신 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민간 측에서 올해 두 차례, 1월과 4월에 북쪽에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유엔사 관련해서 그간에는 왜 그러면 14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엔사 설명에 따르면 그간 14일이라는 기간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유엔사 규정에 수용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민간 측에 의해서 손소독제가 북에 최근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그전에 통일부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얘기하셨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나중에라도 통일부가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승인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배과정의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 또 진행이 완료가 되면 적절한 방식으로 분배 문제를 협의해서 아마 진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확인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네요. 해당 실국과 협의를 해서 추후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6.15 기념행사 관련해서 1월과 4월 민간단체가 북측에 행사를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기관인가요? 아니면 한 기관이 1월, 4월 한 것인가요?

<답변> 우리 민화협, 남측 민화협가 북측 민화협에 요청한 것입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민화위' → '민화협'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
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